하나금융그룹

11

2013년 No.08

은퇴설계를 위한

하나 행복가이드

국내 퇴직연금자산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분석

에코 세대의 은퇴준비 환경변화와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3709 – 7252

Contents

이슈 포커스	국내 퇴직연금자산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분석 에코 세대의 은퇴준비 환경변화와 시사점	01
노후 재무설계	공무원 L씨, 높은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노후 준비 용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전략이 유효 투자상품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채권형 상품중심 구성 필요 11월 주식시장은 유럽의 경기 회복 영향으로 상승세 예상	09
국내외 단신	2013 멜번-머서 글로벌연금인덱스, 한국 D등급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발표 중장년층 노후정책의 방향	14
상품브리프	노후생활까지 보장하는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	18
행복한 노후디자인	수지침을 이용한 겨울철 건강관리	20
하나 뉴스	하나은행, The Banker/PWM社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PB' 등	22
연금 통계		23

국내 퇴직연금자산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분석

연구위원 김 대 익
(kimdi@hanafn.com)

"퇴직연금자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퇴직연금자산의 적절한 운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자산은 원리금보장 및 1년 미만의 단기상품 중심으로 편중되어 운용되고 있고, 그 결과 운용자산에 대한 성과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퇴직연금자산이 분산투자를 통한 중장기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엄격한 자산운용규제의 완화,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 가이드라인 제시 등 중장기 운용 유도가 필요하고, 기업들은 퇴직연금운영위원회 등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설치 · 운영이 요구된다."

퇴직연금자산 적립 증가와 더불어 적절한 운용 중요한 과제로 부상

국내 퇴직연금자산 규모는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다. 2013년 6월말 기준 70.4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12년 말 78.8조원 규모인 개인연금저축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퇴직연금은 3층 보장연금체계 중 2층을 담당하며 개인연금과 더불어 사적연금으로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공적연금만으로 적절한 소득대체율을 감당할 수 없는 국내 상황에서 퇴직연금은 향후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퇴직연금자산은 적립규모의 증가에 비해 운용측면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자산 운용의 엄격한 규제, 사용자들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적절한 의사결정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자산운용이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에 퇴직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적절한 방향에 대해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퇴직연금자산, 원리금보장 및 1년 미만의 단기상품 중심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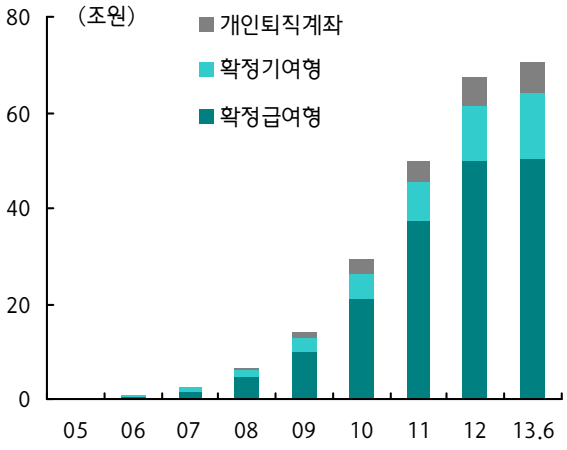
퇴직연금자산 적립금액은 2010년 말 이후 퇴직보험 및 신탁의 효력종료의 영향으로 규모가 급격하게 커졌다. 2010년 말 29.1조원이던 규모가 2013년 6월말까지 2.4배가 성장하며 70.4조원으로 늘어났다.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의 비중이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71.3%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연금(IRP)는 각각 19.7%, 9.0%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의 비중이 2013년 6월말 기준 51.5%로 50%대를 상

회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험권이 31.0%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데, 생명보험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3년 6월말 23.6%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은 7.4%를 보이며 대체로 안정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증권은 17.3%를 점유하고 있는데 2012년 말 18.6%로 최고수준을 기록했을 때보다는 소폭 점유비중이 낮아진 상태이다.

한편 퇴직연금 적립자산의 제도유형 및 금융권역 별로 운용을 살펴보면 모두 대부분의 자산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2013년 6월말 기준 평균 87.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DB형이 98.2%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DC형 77.5%의 비중을 보였다. 금융권역별로는 93.0%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보험이 평균 9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은행과 증권은 각각 94.0%, 84.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은 전체운용자산의 5.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도유형으로는 DC형, 금융권역별로는 증권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리금보장형 운용에 있어서 상품의 구성을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보면 은행은 91.4%를 예적금에 운용하는 반면 보험은 금리확정 및 연동형 보험에 평균 91.7%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증권은 은행 및 보험과는 달리 예적금 31.5%, 금리확정형 보험 14.8%, 원리금 보장형 ELS 25.1%, RP 8.6%로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적배당형 운용에서는 펀드를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는 데 그 중에서 혼합형 및 채권형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적립금의 운용기간별 비중의 경우는 대부분 1년 이하의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86.7%, 증권은 87.8%이고, 생보와 손보는 각각 72.2%, 84.0%를 1년 이하 상품에 운용하고 있었다. 반면 1년 이상의 상품운용에서는 3년 형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운용되고 있었는데, 은행은 5.6%, 생보는 8.3%, 증권은 4.4%의 비중을 보였다. 3년 이상의 경우는 생보가 5.1%로 가장 높았고, 증권과 은행이 3.5%, 3.4%의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금리연동형 상품운용에서는 생보와 손보가 각각 11.3%, 13.2%로 높은 운용

퇴직연금자산 누적적립 추이



주 : 개인퇴직계좌는 기업형과 개인형 모두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제도유형 및 금융권역별 자산운용 구성

(단위 : 조원, %)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기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도유형별	DB	49.3	98.2	0.6	1.3	0.3	0.5
	DC	10.8	77.5	2.9	21.1	0.2	1.5
	기업형IRP	0.6	90.1	0.1	9.3	0.0	0.7
	개인형IRP	4.9	85.6	0.5	8.4	0.3	6.0
금융권역별	은행	34.1	94.0	1.6	4.5	0.5	1.4
	증권	10.3	84.9	1.6	13.3	0.2	1.9
	생보	15.8	95.4	0.7	4.2	0.1	0.4
	손보	5.1	97.5	0.1	2.5	0.0	–

주 : 2013년 6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비중을 보였다. 이상의 분석에서 국내 퇴직연금 자산은 제도유형과 금융권역별 모두 전반적으로 원리금보장, 1년 미만의 단기상품에 편중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운용규제, 기업내 운용관련 의사결정 시스템의 미비 등이 편중 운용의 원인

퇴직연금자산의 원리금보장 상품중심의 포트폴리오 및 1년 미만의 단기적 운용은 중장기적 분산투자를 통한 안정성과 수익성의 제고가 요구되는 퇴직연금자산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이 같은 편중된 운용결과 퇴직연금자산의 최근 3년 평균수익률은 DB 및 DC형이 각각 4.87%, 4.98%로 동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54%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자산의 낮은 운용수익률은 현재도 OECD대비 낮은 소득대체율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DB형의 기업들에게는 낮은 수익률이 미래 퇴직연금 상환시점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퇴직연금자산 운용이 편중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은 우선 퇴직연금자산에 대한 운용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르면 퇴직연금자산은 대부분 우량자산 중심의 투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DC 및 IRP형은 직접투자금지, 적립금의 위험자산 투자 40% 제한 등 DB형 보다 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요즘과 같이 저성장 및 저금리 환경하에서 대체투자 등 다양한 투자 없이 자산운용규정이 요구하는 우량자산중심의 운용만으로는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기업내 퇴직연금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기구의 미정착을 들 수 있다. 현재 퇴직연금자산의 대부분이 DB형으로 운용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내 운용관련 의사결정 시스템의 미비는 다양한 자산의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어렵게 하고 있다. 운용과 관련 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없을 경우 운용담당자 또는 실무자는 운용자산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퇴직연금 자산 운용 한도 내용

	주식투자	채권투자	펀드		예금,적금	대출,부동산	비고
DB 형	30%까지 허용	• 국채 및 지방채 • BBB-이상 투자적격 채권 • A3-이상 투자적격 기업어음 등	주식형 : 50%까지 허용 혼합형 : 50%까지 허용 채권형 : 제한 없음	적립금의 최고 70%까지 위험자산 투자 가능	제한 없음	투자금지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을 위탁적립금의 50% 이내로 제한
DC/IRP 형	투자금지	• 국채 및 지방채 • BBB-이상 투자적격 채권 • A3-이상 투자적격 기업어음 등	주식형, 혼합형, 임대형 부동산 펀드에 대해 적립금의 40%이내서 투자 채권형 : 제한 없음	적립금의 최고 40%까지 위험자산 투자 가능	제한 없음	투자금지	

자료 : 금융감독원

수 없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되는 안전한 자산중심의 운용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위험자산의 편입을 통한 분산투자보다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 위주의 단기 운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제공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들은 기업 등 사용자에게 상품을 제시하고, 사용자로부터 투자상품 운용 지시를 받아 운용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투자상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은 금융기관들은 기업 등 사용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제공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분산투자와 수익률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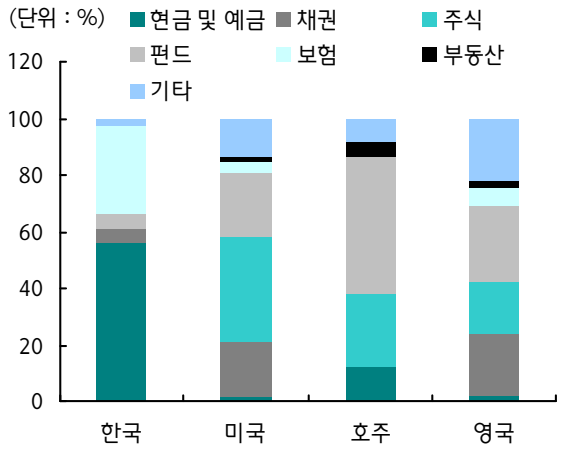
투자규제 완화와 더불어 퇴직연금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 시스템의 설치 · 운영필요

퇴직연금자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제기된 편중된 자산운용이 개선되고, 중장기적인 분산투자를 통한 적절한 수익률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의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운용 규제를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등 해외의 경우는 집중투자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규제 외에 투자대상 자산별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1]. 그 결과 퇴직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도 국내와 같이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편중된 현상을 보이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운용수익률도 미국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이 9%대에 이르는 등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산운용 규제의 완화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최근 금융당국이 원리금보장삼품의 과도한 편입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 비중을 50%까지 제한한 규제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단기상품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 가이드라인 제시, 중장기 운용기업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기업 등 사용자들이 자산운용과 관련한 적절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인프라의 구축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퇴직연금운영위원회 등이 외부 전문가로부터 퇴직연금운용관련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제도화되면 실무자의 원금손실에 대한 부담감소, 연금사업자와의 정보비대칭 문제의 감소 등으로 편중된 포트폴리오 문제의 상당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는 금융기관의 경우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제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투자규제가 완화될 경우 운용수익을 통한 경쟁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상품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비대칭의 해소를 위한 교육의 강화도 요구 된다.

주요국의 퇴직연금자산 운용 포트폴리오



주 : 2011년말 기준
자료 : OECD

1) 류건식 등 3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2008.3

에코 세대의 은퇴준비 환경변화와 시사점

연구원 최 성 민
(sungmin.choi@hanafn.com)

"우리나라는 저성장·저금리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고용시장의 변화 등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은퇴준비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과는 다른 인구사회적 특성을 가진 에코 세대들은 에코 세대의 생활방식에 맞는 새로운 스타일의 은퇴설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온라인 판매채널과 은퇴설계를 위한 교육 및 자문서비스 확대를 통해 에코 세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에코 세대들은 투자형 금융상품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쳐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국내외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전보다 은퇴 후의 생활이 예전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은퇴자산 운용방향을 환경변화에 걸맞게 새롭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용시장은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인한 고용시장 진입 지연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이직 및 조기 퇴직의 증가로 소비기간이 길어진 반면 생애소득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은퇴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에코 세대들은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생활을 즐기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과는 달리 변화된 금융환경 속에서 에코 세대의 생활방식에 맞는 새로운 스타일의 은퇴준비 설계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코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와는 다른 인구사회적 특성을 보유

통계청에서 2012년 8월에 발표한 '베이비부머 및 에코 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1963년생, 평균 연령 50세로서 전체 인구의 14.5%인 695만명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에코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낳은 자녀세대로서 1979~1992년생, 평균 연령 29세로서 전체 인구의 19.9%인 954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에코 세대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와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경제적 배경 속에서 성장해온 세대로 현재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세대이면서 기존 베이비부머 세대들과는 다른 인구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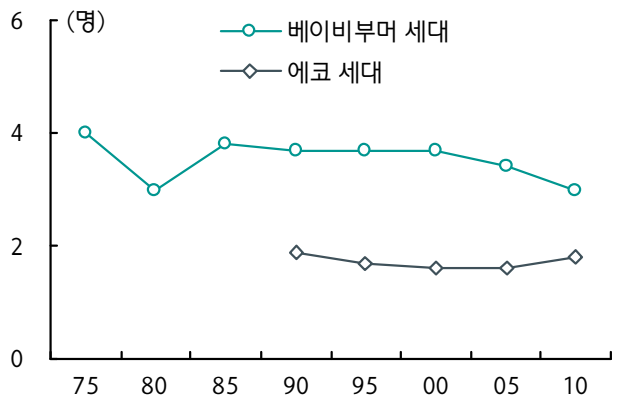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

먼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 중 하나는 1인 가구의 수이다. 베이비부머 1인 가구는 58만 가구에 불과한데 비해 에코 세대는 거의 2배에 육박하는 100만 가구에 달한다. 특히 이 중 1981년생이 11만 가구로 가장 많다. 또한 평균 가구원 수의 경우에도 베이비부머가 가구주인 가구의 가구원 수는 평균 3.0명인 반면 에코 세대의 가구원수는 1.8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베이비부머에서 에코 세대로 세대가 진화할수록 가정을 구성하는 인구 수가 감소하면서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수준 정도를 살펴보면 에코 세대의 대학(4년제) 이상 진학률은 48.9%로 베이비부머의 20.2%와 비교해 매우 높은데 이는 베이비부머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성비의 경우에도 베이비부머 세대는 성비가 다소 비슷하여 여성의 수가 3만명 정도 더 높았던 것에 비해 에코 세대는 남성이 무려 36만명이나 더 많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남아선호사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거주 형태별로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자기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59.6%로 가장 높으나 에코 세대는 보증금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42.5%로 가장 높고 이 외에 전세 31.0%, 자기집이 15.4%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수도권 거주 집중현상으로 에코 세대들이 자기집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측면과 함께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가치관의 변화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코 세대는 은퇴 대비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행측면이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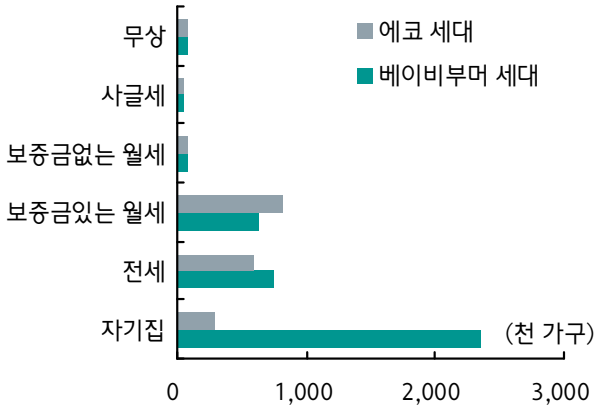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금상품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에코 세대들은 대부분 20~30대부터 은퇴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이나 투자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측면에서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본인의 준비상태가 1~20% 수준으로 준비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체 가계소득 중 10~14% 정도의 비중으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코 세대들은 은퇴 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에코 세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1인 가구수의 증가 추이 비교



주 : 통계청

세대별 거주 형태별 차이 비교



주 : 통계청

은퇴설계를 위한 교육 및 자문서비스 확대

베이비부머 세대와 에코 세대 모두 은퇴 후의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은퇴설계를 위한 정보 부족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은퇴설계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미흡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은퇴설계를 통해 은퇴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드문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은퇴설계 서비스 수요에 대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은퇴설계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와 에코 세대를 포함한 20~40대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향후 금융기관의 은퇴설계 서비스 이용의향에 대해서는 20대로 갈수록 서비스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에코 세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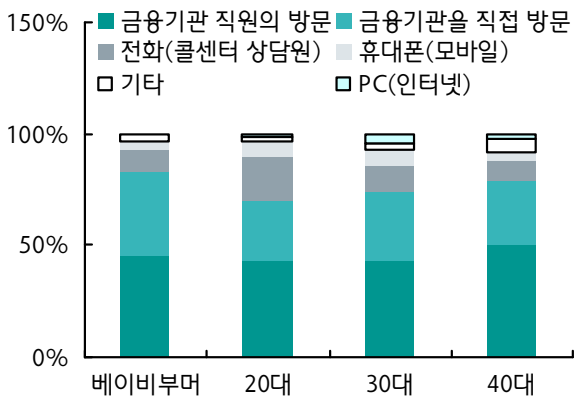
또한 가입자의 이해단계와 수준에 맞춰 단계별로 은퇴설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텐츠를 개선하고 만화, 게임, 멀티미디어 등의 다양한 교육채널을 통해 쉽고 효과적으로 교육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에코 세대의 요구사항에 맞는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또한 에코 세대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 대해 다른 세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응수준이 높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 개인연금의 경우, 상품 가입시 선택한 판매채널 유형으로 대부분의 세대가 금융기관 직원이 방문하거나 가입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형태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콜센터 상담원이나 인터넷, 모바일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은 20대로 갈수록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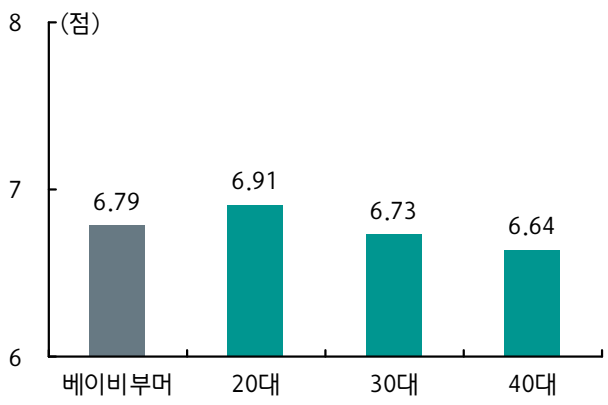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향후 개인연금 가입시 어떤 채널로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항목에서는 베이비부머 15.2%, 20대 15.1%, 30대 12.8%, 40대 15.7%로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들은 현재 한 자리 수 비중에 머물고 있는 인터넷과 모바일 판매채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 가입시 가입채널의 유형



주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기관의 은퇴설계 자문서비스 이용의향



주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 허용 및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인하 등 온라인 채널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도 온라인 채널에 익숙하고 이에 대한 수요가 많은 에코 세대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코 세대들은 투자형 금융상품의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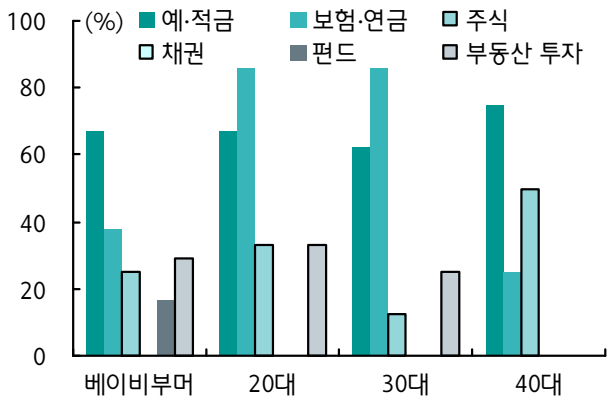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에코 세대들은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금리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익률이 높은 투자형 금융상품 등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림으로써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연금 지급액 감소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자산의 많은 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에코 세대들은 은퇴준비를 위해 주식, 채권, 펀드 등의 투자형 상품보다는 예·적금이나 보험, 연금 등에 은퇴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축적된 자산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저성장·저금리의 변화된 금융환경에서 은퇴 후 내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큰 비중으로 위험자산을 보유해야만 한다. 그러나 높은 수익률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동반된다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잘 짜여진 분산투자가 필요하다. 위험자산을 보유하더라도 분산방법을 적절히 선택한 경우 전체 자산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선택이다. 대체투자의 경우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비해 투자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보수적인 투자성향의 은퇴자는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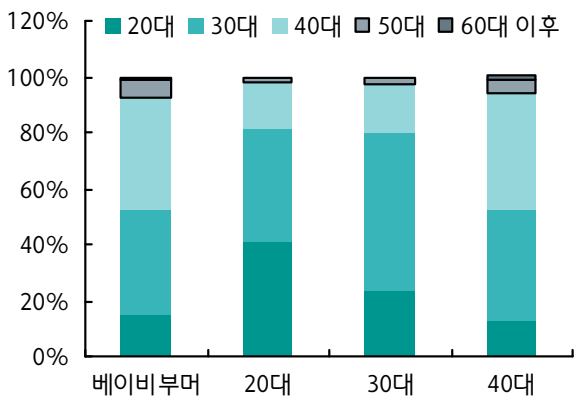
또한 에코 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징 중 하나로 지적된 1인 가구수의 증가는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지지해줄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인 이상의 가구와는 다른 차원의 은퇴설계가 필요하다. 이들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금자산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적금 상품보다는 투자형 금융상품 가입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은퇴준비를 위한 저축 및 투자 형태



주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은퇴준비를 위한 저축 및 투자활동 시작시기



주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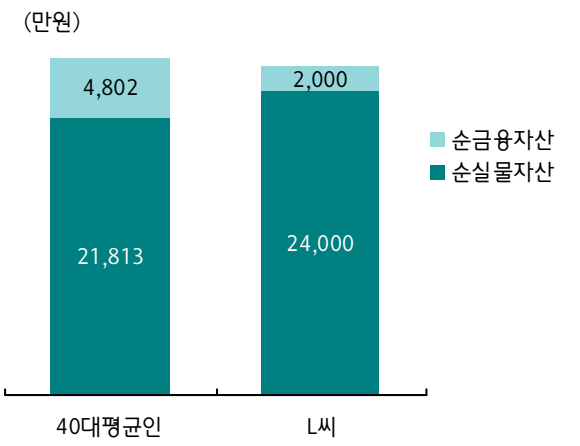
공무원 L씨, 높은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노후 준비 용이

공무원 L씨(42세)는 60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은퇴 후 풍족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월 약 4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씨는 은퇴 후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월 28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85세까지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퇴직금은 매월 23만원으로 환산된다. 개인연금은 9년 전에 가입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으며, 월 30만원씩 60세까지 납입할 예정이다. 일정한 수익률(약 3%)을 감안한 연금저축보험의 일시금을 매월 연금형태로 받을 경우 72만원으로 환산된다. 여기서 할인율은 4%에서 2%까지 매월 0.5%씩 차감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한편, L씨는 현재 2억 4천만원 대의 아파트를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40대 평균인과 L씨의 재무상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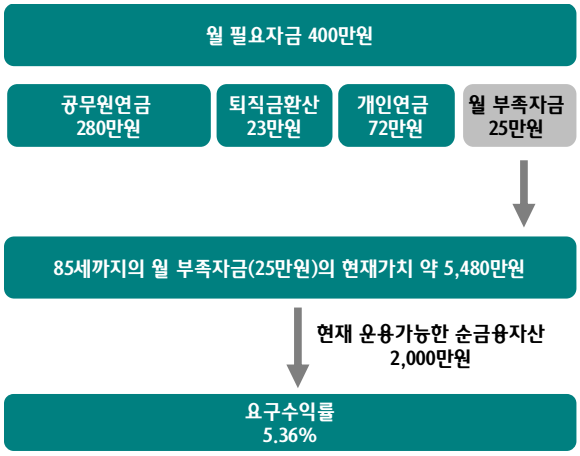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공무원연금과 월 환산한 퇴직금 및 개인연금저축을 필요 생활자금에서 차감하면 은퇴 후 월 부족자금은 25만원이 예상된다. 이를 85세까지 필요한 금액을 은퇴 시점의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약 5,480만원 정도이며, 현 시점에서 보유 중인 순금융자산 2,000만원을 운용하여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약 5.36%의 수익률이 요구된다. 단, 현재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현재보다 상향 조정될 경우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어 월 부족자금 마련을 위한 요구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L씨의 경우 40대 평균인과 비교할 때 순금융자산은 다소 부족하지만 순실물자산이 많아 전체 자산 규모로 볼 때 평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은퇴 이후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많은 편이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해 현재 보유 투자자금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노후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L씨의 노후준비를 위한 요구수익률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전략이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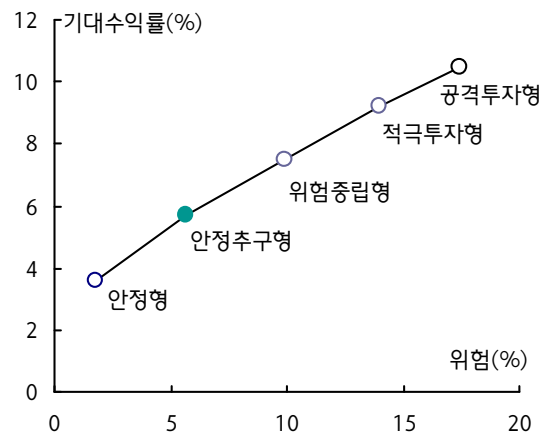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성향은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으로 분류된다. 공무원 L씨가 현 상태로 노후 준비를 유지해나갈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수익률은 5.46%로 계산되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L씨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11월의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투자비중은 국내주식형 10.0%, 중위험형 17.5% , ELS/ELD에 17.5%, 국내외 채권형 27.5%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전월과 동일한 전략이다.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협상의 일시적 타결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인한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산별 투자비중은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선진국 중심의 투자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안정추구형 전략은 상대적으로 주식형보다는 채권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최근 셧다운 사태의 영향으로 거시변수의 하락이 불가피해보여 양적 완화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리도 박스권 등락을 보일 전망이며 장단기 스프레드도 횡보 흐름이 예상되는 바 금리에 민감한 하이일드 채권 및 미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주식의 경우 경기회복 흐름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주에 대한 장기투자 및 저평가된 배당주에 대한 투자 등을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전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중위험형 전략과 국내외 증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관리를 위한 ELS 등의 대안형 투자의 비중도 상당 부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자산구분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국내주식	–	10.0	12.5	32.5	45.0
해외주식	–	–	15.0	27.0	27.5
원자재	–	–	–	–	–
중위험형	15.0	17.5	17.5	9.5	9.5
ELS/ELD	10.0	17.5	17.5	10.0	10.0
국내채권	40.0	22.5	12.5	5.0	2.5
해외채권	–	5.0	10.0	7.5	2.5
현금성	35.0	27.5	15.0	8.5	3.0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투자 상품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채권형 상품중심 구성 필요

11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전월과 동일하게 국내외 채권형 비중을 27.5% 이상 유지하기로 한다.

포트폴리오의 22.5%를 투자하는 국내채권은 기업신용분석 및 저평가 종목 발굴을 통해 확정금리형 상품에 비해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흥국멀티플레이증권4호(채권)에 투자하며, 5%를 투자하는 해외채권은 미국 하이일드채권 및 미달러표시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고수익, 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되 짧은 듀레이션 전략으로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JP모간단기하이일드(채권) A에 투자하였다.

포트폴리오의 17.5%를 투자하는 중위험형 상품은 롱숏전략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와 채권금리+α를 추구하며, 변동성 장세에서 양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주식혼합) A에 투자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리서치센터 추천 15개 종목에도 직접 또는 랩 형태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구조화상품은 주가가 일정수준으로 하락하더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ELS 상품에 투자하며 투자비중은 17.5%이다.

국내주식형의 경우 인덱스형, 중소형주형, 성장형, 가치형으로 분류되나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성장형과 가치형에만 투자한다. 성장형 포트폴리오 위주로 하되, 가치형 투자를 통해 저평가 종목 발굴 및 주가상승을 추구하는 성장가치형 펀드인 하나UBS 승승장구코리아(주식) A에 5%, 대형주 중심으로 업종 내 베스트 종목에 투자하고 리서치에 기반한 기업 펀더멘탈 변화 분석을 통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A에 5%를 투자하였다.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인만큼 국내주식형의 투자비중은 10%에 불과하며 해외주식형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시중금리를 반영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MMF/MMDA/MMT의 비중을 27.5%로 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한편 L씨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 중이며 매월 30만원씩 납입하고 있다.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	비중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국내주식	일반주식형	하나UBS 승승장구코리아(주식) A	하나UBS	5%
		일반주식형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 A	트러스톤자산운용	5%
	대안	중위험형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주식혼합) A	트러스톤자산운용	15%
		구조화	ELS(ELF/ELT)	–	17.5%
	국내채권		흥국멀티플레이증권4호(채권)	흥국자산운용	22.5%
	해외채권		JP모간단기하이일드(채권)A	JP모간	7.5%
	현금성		MMF/MMDA/MMT	–	27.5%
	합계				100%
연금저축보험	매월 30만원 납입				

주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
2) 유형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상기 자산배분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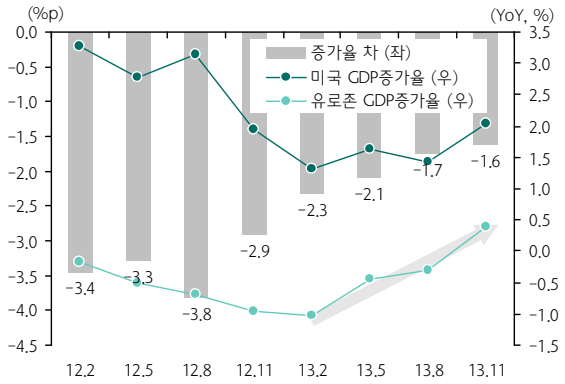
자료 : 하나대투증권

11월 주식시장은 유럽의 경기 회복 영향으로 상승세 예상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되었다. 다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내년 초로 연기된 것이긴 하지만 데드라인(17일)을 넘기지 않고 타결되었다. 글로벌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던 이번 협상의 타결로 글로벌 주식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타결로 단기적으로는 이머징 주식시장의 반등 폭이 선진국 주식시장을 소폭 상회하였으나, 펀더멘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반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선진국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선진국 주식시장의 회복세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11월 국내 주식시장은 타 이머징 국가 대비 견조한 국내 경제 펀터멘털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미국에 비해 유럽의 경제 회복 속도가 더 빠르고 유럽증시의 기업이익 개선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지역 경기 회복 모멘텀은 수출주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유로존의 GDP 증가율 및 차이



자료 : Wisefn, 하나대투증권

채권시장은 방분간 금리 박스권 등락 예상

美 부채한도 협상 결렬로 10월 들어 셧다운에 돌입하자 일부 안전자산 선호가 예상되었지만 금리는 상승했다. 과거 미국 신용등급 강등 시 안전자산 선호로 금리가 하락했던 것과 달리 다소 반대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美 정부의 기술적 디폴트 우려를 반영하며 단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하던 금리는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 하락했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다시 테이퍼링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10월 말 FOMC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될 가능성은 낮아 금리 상승 압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나쁘지 않은 대내외 경제지표로 인해 금리 하락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당분간 금리는 박스권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장단기 스프레드는 횡보 흐름이 예상되며, 크레딧 스프레드는 동양 사태에 따른 회사채 및 크레딧물 시장 심리 위축으로 소폭 확대된 이후 축소는 당분간 제한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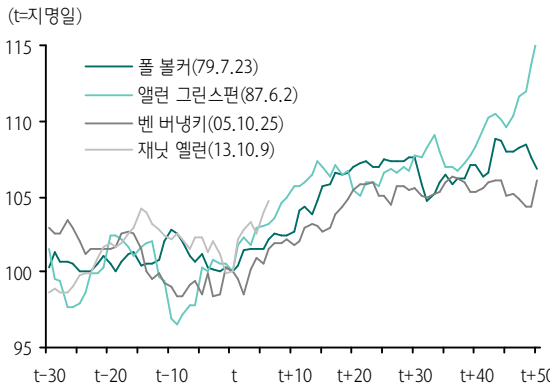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하나대투증권

해외시장은 美·유럽 등 선진국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

미국시장은 셧다운의 여파로 향후 1~2달간의 경제 지표는 다소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셧다운이 미치는 경제적인 여파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인 미국 경제 회복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출구전략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경감될 것으로 생각되며, 과거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된 후 주가가 우호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긍정적인 주식시장 흐름이 예상된다. 유럽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들어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는 소비자기대지수를 바탕으로 PMI 제조업지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로존 산업경기에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ZEW 경기예상지수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향후 유로존 산업경기는 호전이 예상된다. 일본은 제한적이지만 완만한 개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기에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칸제조업지수가 개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산업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美 연준의장 지명 전후 미국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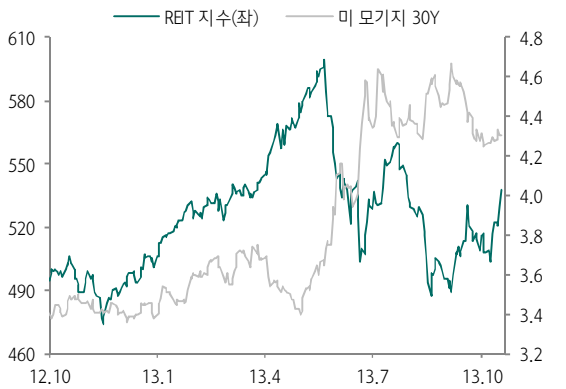
|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중국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8차 3중전회가 개최된다. 신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회의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 정부가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시스템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큰 부양책보다는 구조적 개혁 등의 정책 등이 예상된다. 인도는 루피화 통화가치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시장 안정을 통해 주가도 전고점을 돌파했으나 향후 물가 안정 정책이 중요해 보인다. 브라질은 금리 인상 등 정부 정책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리츠시장은 美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다소 안정이 예상

테이퍼링 지연에 따른 금리 하락으로 반등하던 리츠 가격은 美 정부 셧다운에 따른 디폴트 우려로 美 금리가 상승하자 다시 하락하였다. 이후 美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불안 요소 제거로 인한 금리 하락이 리츠 가격 반등세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다만 셧다운 사태에 따른 부동산 등 美 경제지표의 일시 둔화는 리츠 가격 반등을 다소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리츠 및 美 모기지 가격 추이



|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 **2013 멜번-머서 글로벌연금인덱스, 한국 D등급**
>
> "한국을 포함 일본, 중국 등 주로 아시아 국가의 연금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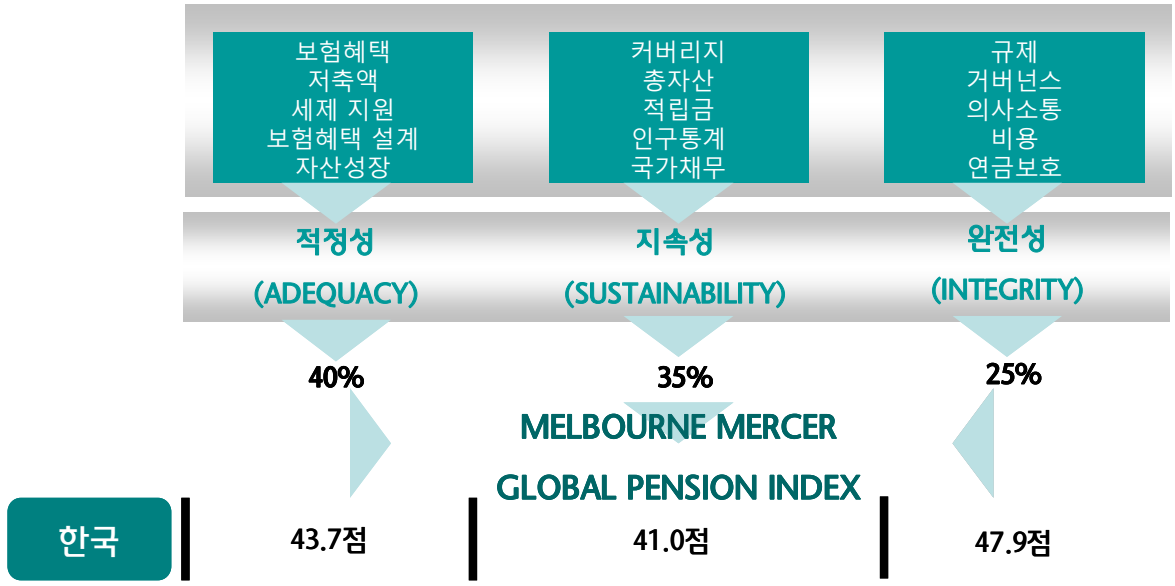
멜번-머서 글로벌연금인덱스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개인 자산과 저축 등을 모두 고려해 국가별로 연금체계를 평가하여 발표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2009년부터 발표된 가운데 한국은 작년부터 포함되었고, 2013년에는 새롭게 인도네시아와 멕시코가 포함되어 총 20개국이 지수 평가 대상국이다. 동 연금 지수는 연금체계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완전성의 세 가지 하부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가중치가 각각 반영되어 점수가 결정된다. 세부적으로 세 개의 하부지수는 연금액이 은퇴자의 노후생활에 적정한지 여부, 현재 지급하는 연금의 장기 유지 가능성, 사적연금시스템의 원할한 운영 요건 구비 정도 등을 의미한다.

2013년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덴마크의 연금시스템이 적정성, 지속가능성, 완전성에서 각각 75.2점, 86.1점, 80.0점의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 80.2점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는 특히 선진화된 연금제도와 충분한 급여 수준, 법규 체계를 갖춘 사적연금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B등급 이상을 받아 안정적인 연금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국가로는 네덜란드, 호주,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싱가폴, 칠레, 영국 등이 포함되었다.

B등급 이상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는 호주와 싱가폴 2개 국가다. 우선 호주는 2012년 대비 2013년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적립률 상향을 포함한 더욱 강력해진 연금 제도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싱가폴의 경우는 전년대비 점수가 큰 폭 상승하여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두 개 등급 상향되었는데, 이는 싱가폴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평가에 대해 OECD가 조정한 결과가 반영되었고, 사적연금의 커버리지에 대한 데이터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시아 조사대상국 중 호주와 싱가폴을 제외한

멜번-머서 글로벌연금인덱스 산출 방법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정성, 지속가능성, 완전성에서 모두 40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아 총점 43.8점으로 20개국 가운데 18위에 그치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완전성 측면에서는 47.9점으로 멕시코에 이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적절한 연금수준을 확보하고, 연금제도의 신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사적연금의 중도정산 제한 강화를 통한 정기적인 수입원으로의 역할 증대, 적립률 상향을 통한 연금자산 증대,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감사 등을 포함하여 사적연금에 대한 거버넌스 요건 개선, 연금제도 가입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 등을 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시스템이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 수십년 내 공통적으로 마주하게 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연금수령 및 퇴직연령 상향,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촉진, 더욱 높은 수준의 개인 저축 장려를 통한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 감축,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사적연금시스템의 커버리지 증대, 퇴직 전 연금저축의 중도 인출 제한, 사적연금의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가입자들의 신뢰 향상 등을 공통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지수 평가의 경우 각국별로 40개 이상의 지수 평가 결과가 포함되고, 그 중 몇몇은 단순히 국가간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점수 차이가 1~2점 높다고 해서 어느 국가의 연금시스템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높은 점수는 그 국가의 연금시스템이 더욱 체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연금시스템이 인도네시아, 인도에 이어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향후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부족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의 강구가 요구된다.

(“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Mercer, 2013.10)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인덱스 2013

등급	종합지수	해당국가	등급별 세부내용
A	81 이상	덴마크	지속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완전성을 갖춰 훌륭한 연금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시스템
B+	75 – 80	네덜란드, 호주	상당수 좋은 특징을 바탕으로 건전한 구조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해 A 등급과는 차이가 존재
B	65 – 75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싱가폴, 칠레, 영국	
C+	60 –65	–	몇몇 좋은 특징이 있지만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리스크와 단점들이 있음. 이 부분의 개선 없이는 효율성과 장기 지속가능성이 의문시 됨
C	50 – 60	독일, 미국, 폴란드, 프랑스, 브라질, 멕시코	
D	35 – 50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몇몇 바람직한 특징이 있지만,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단점과 누락된 부분이 있음. 이 부분의 개선 없이는 효율성과 장기 지속가능성이 불확실
E	35 미만	–	

주 : 2013년부터 멕시코, 인도네시아를 추가, 총 20개국이 조사대상 국가임
자료 : Mercer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발표

"국민연금의 중기 발전계획은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초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추계 결과 현행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은 2043년 최대 2,561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44년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2060년 말 –281조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차 재정계산 결과와 수지적자 발생시점 및 적립금 보유기간 등은 동일하나, 기금규모의 변동폭은 다소 확대된 수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노후빈곤 해소 기반 강화,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선진화 등과 관련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기반 강화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는 즉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며,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추진 및 공 · 사적 연금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가입자 구조는 기존의 '1가구 1연금'에서 '1소득자 1연금'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재직자노령연금의 감액방식을 현행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로 개선하고, 고령자의 근로활동 필요성 증대로 근로유인형 노령연금제도로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연금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애판정 기준에 대한 합리성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선진화와 관련하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자산배분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해외 및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장기투자에 부합하는 기금운용 프로세스 및 인프라를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금융위기 대응 등을 위해 사전적 위험 관리체제 강화와 장기투자 관점의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려 한다. 한편 공적연기금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및 책임투자 원칙 도입, 국내기업 및 금융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전망이다.

급속한 저출산 · 고령화 추세로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 ·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10)

국민연금 재정 추이

(단위 : 천명, 십억원)

	2013년	2020년	2040년	2060년
가입자 수	20,396	20,367	16,823	13,573
노령연금 수급자 수	2,656	3,881	9,743	14,475
보험료 수입	32,135	54,073	141,595	26,3375
연금급여 지출	14,032	33,487	212,563	655,155

자료 : 보건복지부

중장년층 노후정책의 방향

"고용을 통해 노후소득을 얻을 수 있는 유연노동시장의 제도화가 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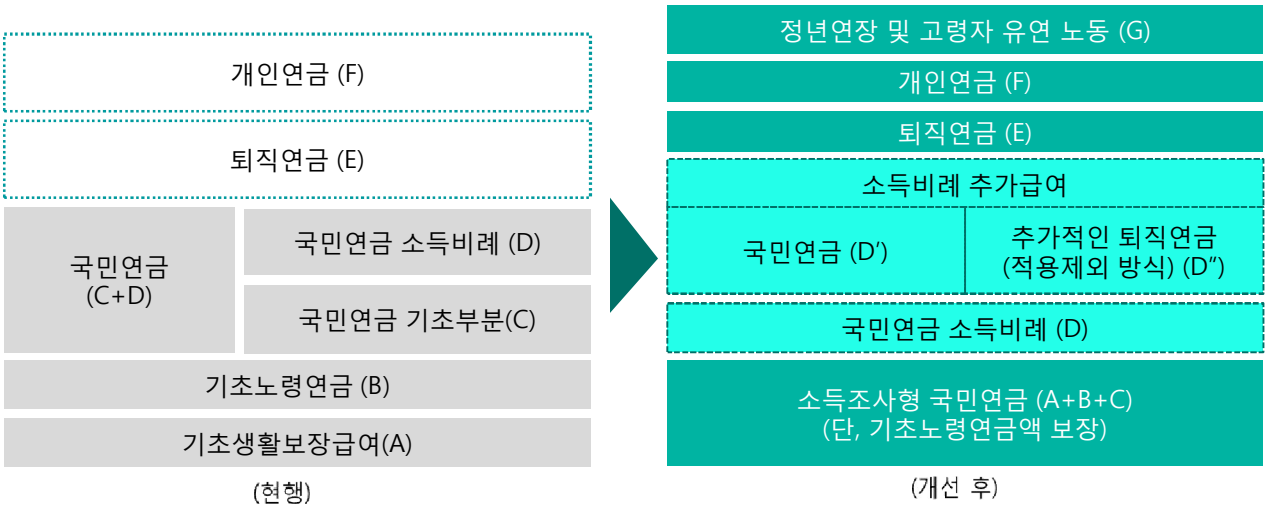
지난 10월 은퇴연금협회에서는 "장년층을 위한 연금 정책 : 4층 노후보장시스템" 을 발표하고, 기존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 구조에 은퇴노동을 포함한 다층 노후보장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다층연금시스템 모델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고령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소득조사형 국민연금으로 통합했으며, 국민연금 기초부분을 분리해 연금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한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의 적용제외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적용제외 방식을 통해 자율로 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정 비율로 공적연금의 기여를 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적용제외 부분은 국민연금의 소득비례기여금을 추가적인 퇴직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운용수익률 경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분과 퇴직연금간에 기금 운영에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외에 고령자들이 능력이 닿는 한 고용으로 노후소득을 얻을 수 있는 유연노동시장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년층(50세~65세)의 경우 과거 노후세대보다 훨씬 건강하고 학력이 높은데 반해 자산이 감소하고 재산 형성이 갖춰지지 않아 고용으로 노후소득을 얻을 수 있는 유연노동시장의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시스템 구축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시장을 퇴직연금 중심으로 강화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연노동시장의 제도화로 정년 연장 및 은퇴기간에도 노동을 계속하면서 노동을 통한 지속적인 연금 수급이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퇴직연금의 연금 단일화, 개인연금 상품의 세제 및 인출 조건 단일화,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장기자본시장의 육성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장년층을 위한 연금 정책 : 4층 노후보장시스템", 은퇴연금협회, 2013.10)

다층연금시스템 모델



자료 : 은퇴연금협회

노후생활까지 보장하는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

종신보험, 은퇴자를 위한 상품으로 진화

종신보험은 가장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 생활자금을 보장해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다.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사망 시기나 원인에 관계없이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돼 생명보험 본연의 기능에 가장 충실한 상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침체 지속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이라는 외부 환경 하에서 종신보험은 고객의 니즈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에는 가족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출시가 증가하였다. 동 상품은 일시금으로 사망보험금은 물론 매월 가족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기본 사망보험금(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의 50%)에 추가로 보험가입금액의 1% 또는 2%를 정해진 은퇴 나이까지 매월 가족생활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 켜주는 종신보험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상품이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30~40대 가장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다.

또한 기본적인 사망보장 외에도 다양한 특약을 활용해 암을 비롯한 CI(치명적 질병), 실손의료비, 재해치료비, 입원비 등을 보장해 본인 필요에 따라 맞춤설계를 할 수 있는 종신보험도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기존에 출시된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의 높은 가격부담을 낮추고 생존급부를 강화한 새로운 상품이 추가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즉, 사망 보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평균수명 증가로 노후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 필요한 의료비와 생활자금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 방향이 변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출시된 연금 지급형 종신보험의 경우 일정시점이 지나면 중도급부형식으로 전환돼 매년 연금지급이 가능한 상품이다. 기존에 종신보험을 완전히 연금 전환해 사망보장에 대한 보장이 사라지는 리스크도 극복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종신보험으로 사망보장을 일정수준 유지하다가 은퇴 후 수입이 없어지면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고 국민연금 수령시점인 65세 이전까지의 가교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 출시 현황

생명보험사	상품명	특징
하나생명	퍼펙트 생애설계 종신보험	일정기간 경과 후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를 생활자금으로 지급, 45세부터 65세 중에서 지급시기 선택
삼성생명	스마트변액유니버셜CI종신보험	조기사망은 물론 치명적 질병 노출 위험과 노후대비
한화생명	스마트변액CI통합보험	연금전환 시 가입시점 경험생명표 적용
교보생명	더 든든한 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가입 후 일정 시점마다 추가 금액 적립 가능
미래에셋	연금전환되는 변액종신보험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중도에 연금전환 가능

보험

무배당 퍼펙트 생애설계종신보험

상품의 특징

무배당 퍼펙트생애설계종신보험

1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여 생활자금으로 활용 가능
- 일정기간 경과 후 매년 생존시, 보험가입금액의 5%를 생활자금쿠폰으로 지급 (1종: 14년간, 2종: 10년간 지급)
- 고객의 라이프 싸이클에 따라 생활자금 쿠폰 지급시기 선택 가능 (45세, 50세, 55세, 60세, 65세)

※ 생활자금쿠폰은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 되며, 지급된 금액 만큼 사망보험금이 감액됩니다.

2 폭 넓은 보장서비스
- 14개의 다양한 특약을 통한 사망에 대한 보장 뿐 아니라 재해, 암, 질병 등 종합보장까지 고객의 니즈에 따라 맞춤설계 가능

3 하나의 보험으로 가족까지 해결
- 자녀를 위한 (무)자녀보장특약, 배우자를 위한 (무)배우자종신보장특약으로 온 가족 종합보장설계 가능

4 연금전환을 통한 노후 연금 니즈 충족

5 고액 계약 할인
-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이상시 보험료의 2.5%, 2억원 이상시 보험료의 4% 할인

6 세제 혜택
- 당해년도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에 한함)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생활자금 활용!
무배당 퍼펙트생애설계종신보험 하나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생명

수지침을 이용한 겨울철 건강관리

지난 여름이 유난히 무더웠다면, 다가올 겨울은 10월 15일 강원 산간에 내린 첫눈을 시작으로 예년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며,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의 변동 폭이 크고,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난히 추워질 겨울을 대비하여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원기증진을 시키는 방법과 몸이 차가워지기 쉬운 겨울 소화불량에 걸리기 쉬운 만큼 소화기능에 좋은 건강관리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원기를 증진시켜주고, 신진대사를 조절해주는 처방

겨울철 유행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바로 독감과 감기가 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온도가 낮은데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환기를 잘 시키지 못해 더욱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 이러한 증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처방이 바로 원기를 증진시켜주는 처방이다.

수지침요법에서는 원기를 증진시켜주고 신진대사를 조절해주는 기본처방이 있는데 남성의 경우는 A1, A3, A6, A8, A12, A16, A18, A30를, 여성의 경우는 A1, A5, A6, A8, A12,A16, A18, A30 B24 에 서암뜸을 떠주거나 볼펜 등을 이용해서 압박 자극을 주면 좋다.

A1 은 생식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손목 주름에서 약 5mm 올라간 자리로 평상시에 A3 과 함께 평상시에 생식기 질환, 방광질환, 전립선증상 등이 있을 때 압박 자극을 주면 좋은 혈이다.

A16 은 명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손바닥과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는 관절의 아랫주름 가운데 부분이다. 평상시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더부룩하며 특히 체증 등으로 인해서 명치가 뻐근할 때 자극을 주면 좋은 혈이다.

A8 은 배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손바닥의 가운데 부분이고 A1과 A16 의 중간 위치이다.

A6 은 A1과 A8 을 7등분 했을 때 6번째 위치로 배꼽 밑 단전에 해당되는 부위로 기혈순환이 안되거나 손발이 차가울 때 자극해 주면 좋은 혈이다.

A3 은 A1과 A8 을 7등분했을 때 3번째 위치로 방광에 해당하는 혈이다.

A5 는 A1과 A8 을 7등분 했을 때 5번째 위치로 여성의 자궁질환을 치료해 주는데 특효인 혈이다.

A12 는 A1 과 A16 의 중간 위치로 위장기능을 조절해 주는 혈이다.

A18 은 가슴의 중앙에 해당되는 부위로 평상시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가득 차 있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 압박자극해 주면 좋은 혈로 가운데 손가락의 첫째 관절과 둘째 관절의 중앙위치이다.

A30 은 양쪽 눈썹 사이 정중앙에 해당되는 부위로 정신력을 집중에 좋은 혈이고, 스트레스 해소와 건망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혈이다.

B24 는 뒷머리 1~ 2경추에 해당되는 혈로서 대뇌 혈류량 조절과 혈압조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혈이다.

이와 같은 자리에 볼펜 등으로 10초~ 20초 간격으로 압박자극을 반복해주거나 서암뜸을 2~ 3회씩 떠주게 되면 원기를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류머티즘질환이나 통증성 증상도 해소해 줄 수 있다.

위장 장애 해소와 소화 기능에 도움을 주는 처방

한편 겨울철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지기 쉽다. 이로 인하여 겨울철에는 위장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장에 해당되는 A12에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 놓고 좌우 양옆에 둘째와 넷째 손가락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마사지 를 약 5분 정도씩 해 주면 식욕을 조절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소화장애를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A8, A12, A16 과 K9, F4, E42, F19 에 함께 자극을 하면 다이어트와 위장장애를 해소하는데 특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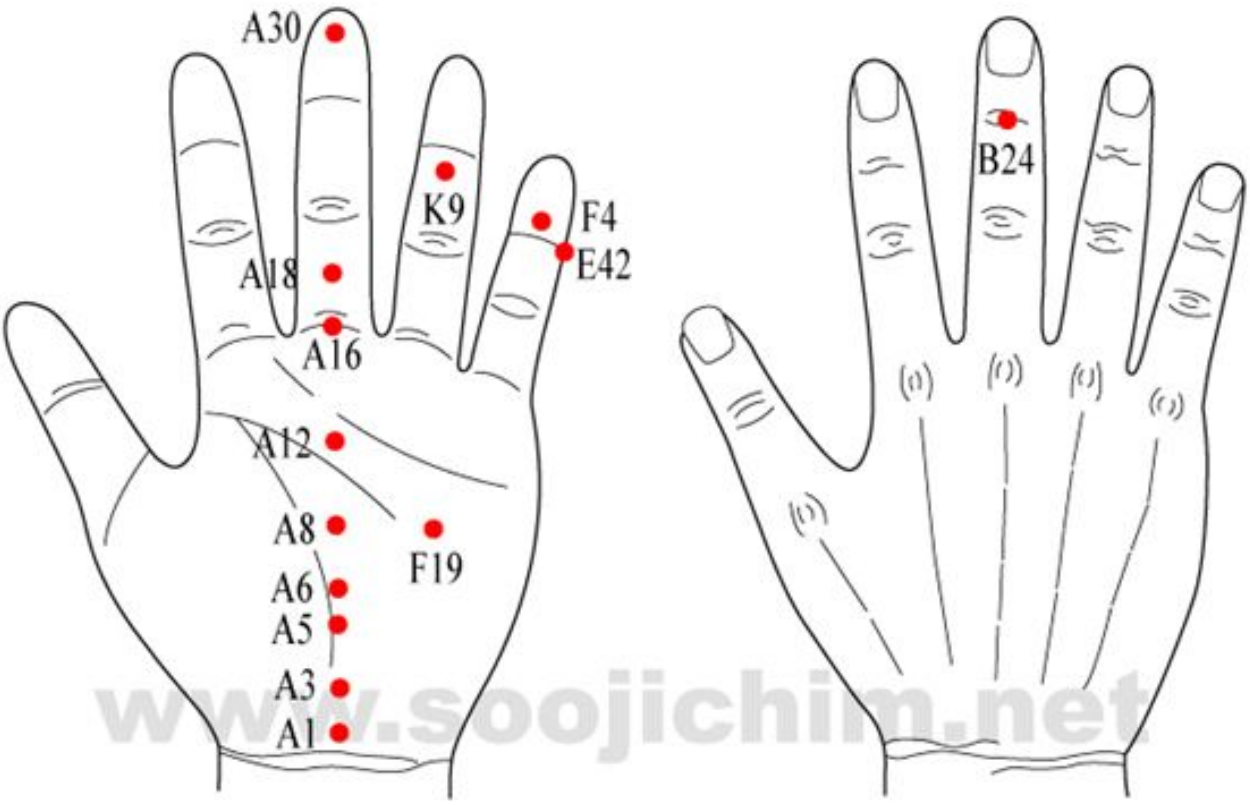
K9 는 네 번째 손가락의 세 번째 관절과 두 번째 관절의 1/4 지점이고, F4 는 새끼손가락에서 손끝과 세 번째 관절의 1/4 지점이고, E42 는 새끼손가락 측면의 세 번째 관절과 만나는 교차점이다.

F19 는 손바닥 가운데 A8 과 손날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부위로 비장, 췌장의 기운을 조절해 주어 비위를 좋게 만들어주고, 다이어트와 당뇨에 필수인 혈이다.

원기를 증진시키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여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하나은행 행복디자인 센터 행복디자인)

수지침 요법



www.soojichim.net

| 자료 : 고려수지침학회 |

하나은행, The Banker/PWM社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PB'

하나은행은 지난 30일 The Banker/PWM社가 주최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5회 Global Private Banking Awards 2012'에서 3년 연속 국내 최우수 PB로 선정되었다. 심사단은 지난 3년간 하나은행은 탁월한 자산관리능력과 함께 다양한 상품·서비스 출시로 고객의 니즈에 한발 앞서 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외환은행, '2013 환은장학금 수여식' 개최

외환은행나눔재단은 지난 29일 국내 저소득층 가정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 장학금을 수여하는 '2013 환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동 장학금은 1989년부터 외환은행이 국내 학생의 학업 지원을 위해 운영해왔으며, 지원 대상도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하나 중국1등주 랩' 출시

하나대투증권은 홍콩에 상장된 중국본토 기업 중 중국의 대표 우량기업에 장기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하나 중국1등주 랩'을 판매한다. 최저가입금액은 3,000만원, 기간은 5년 이상이며, 현재 중국 내수 시장 대표 우량기업 중 향후 성장세가 기대되는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로 복리효과를 누리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SK카드, '프라이빗 웨딩 이벤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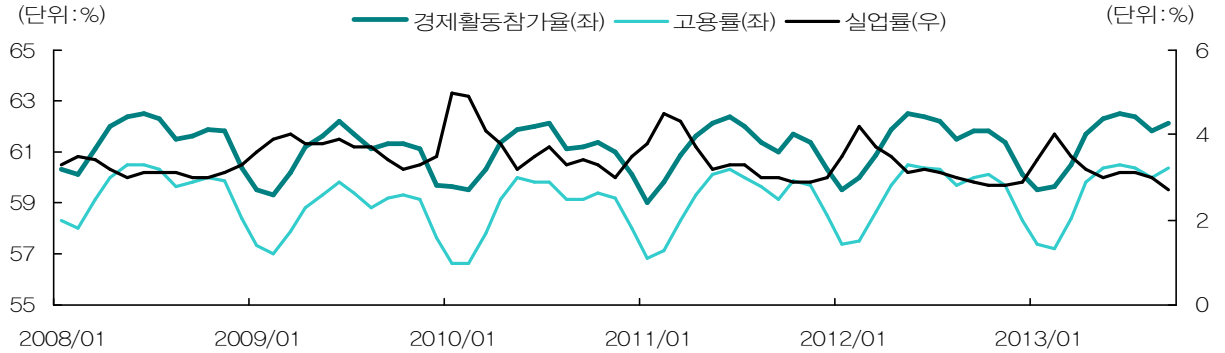
하나SK카드는 결혼 준비 중인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다양한 할인 및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프라이빗 웨딩 이벤트'를 실시한다. 동 이벤트는 연말까지 하우스 웨딩홀 무료 투어서비스 및 대관료 할인 혜택, 하나SK카드 웨딩센터 방문 시 할인 및 무료서비스 등 토탈 웨딩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 활동

통계청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8	61.5	6.5	63.6	75.2	80.1	72.0	37.7	59.5	5.9	59.1	72.9	78.4	70.6	37.2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1~9	61.4	7.7	61.6	75.3	79.9	74.3	39.0	59.4	6.9	56.8	72.9	78.2	72.8	38.2
2013.8	61.8	8.1	61.2	75.7	80.1	74.7	40.5	60.0	7.5	56.6	73.3	78.5	73.3	40.0
2013.9	62.1	6.8	62.1	75.7	80.1	75.2	41.1	60.4	6.3	57.3	73.8	78.7	74.0	40.6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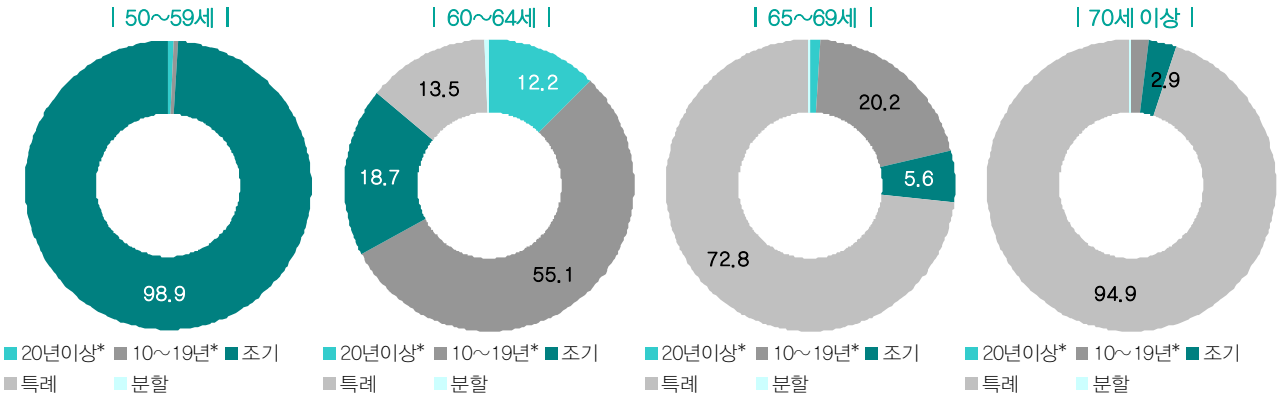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1. 가입자 현황

(개소, 명)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7	20,540,139	1,269,385	11,769,413	8,478,011	1,950,327	6,527,684	188,544	104,171
2013.8	20,611,835	1,276,700	11,797,569	8,518,569	1,949,874	6,568,695	188,622	107,075

2. 2013년 8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건, 억원)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12	1,124	17,474
2010.12	2,016	30,361
2011.12	2,936	41,000
2012.12	5,013	69,006
2013.1~9	3,868	46,642
2013.8	482	5,924
2013.9	341	3,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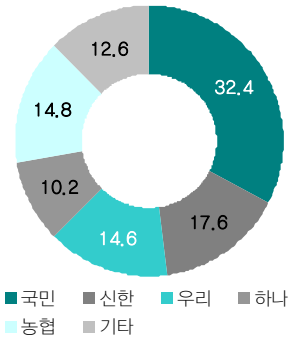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추이

2. 2013년 9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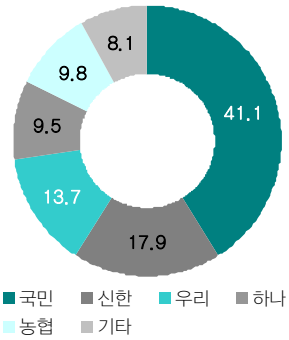
(억원)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1,251	84,994
신한은행	594	36,970
우리은행	566	28,301
하나은행	395	19,553
농협	571	20,185
기타	487	16,855
합계	3,864	206,858

보증공급액 기준



잔액 기준



퇴직연금

노동부, 금융감독원

1. 2013년 9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명, 건)

구분	근로자				사업자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7,527,540	5,091,089	1,324,333	84,837	1,276,455	84,139	104,756	46,512
생명보험	3,025,356	2,726,947	181,750	3,531	218,594	74,035	17,105	1,792
손해보험	1,044,940	1,824	55,566	271	57,247	1,926	18,000	230
증권	2,575,067	2,330,760	134,841	392	118,730	2,946	6,480	242
근로공단	93,696	–	91,356	470	24,881	–	24,655	226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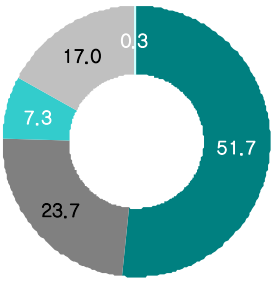
(개소, %)

구분	합계	DB형 단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단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11	194,209	65,531	33.7	4,129	2.1	95,317	49.1	29,232	15.1
2012.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3	215,962	70,868	32.8	4,924	2.3	109,820	50.8	30,350	14.1
2013.6	226,994	73,301	32.3	5,300	2.3	117,808	51.9	30,585	13.5
2013.9	235,716	74,543	31.6	5,549	2.4	123,650	52.5	31,974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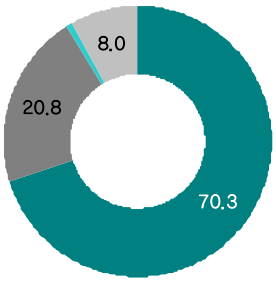
3. 2013년 9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720,284	506,156	149,601	6,711	57,816
은행	372,649	227,546	98,447	6,484	40,172
생명보험	170,517	142,304	20,409	179	7,625
손해보험	52,507	45,979	4,599	11	1,918
증권	122,488	90,328	24,052	22	8,087
근로공단	2,123	–	2,093	15	8

업권별 적립금 현황



상품 유형별 적립금 현황



■ 은행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DB형 ■ DC형
■ 증권 ■ 근로공단 ■ 기업형IRP ■ 개인형IRP

4. 2013년 9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억원, %)

구분			DB형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		257,463	50.9	90,840	60.7	5,858	87.3	36,375	62.9	390,536	54.2
	금리확정형보험		176,500	34.9	15,241	10.2	130	0.0	7,333	12.7	199,204	27.7
	금리연동형보험		18,279	3.6	4,944	3.3	55	1.9	1,365	2.4	24,643	3.4
	국채		491	0.1	1,111	0.7	0	0.8	1,497	2.6	3,099	0.4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정부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리금보장ELS		36,658	7.2	1,996	1.3	0	0.0	2,072	3.6	40,726	5.7
	RP		8,158	1.6	1,852	1.2	2	0.0	799	1.4	10,810	1.5
	발행 및 표지어음		0	0.0	150	0.1	0	0.0	40	0.1	190	0.0
	기타		0	0.0	1	0.0	0	0.0	5	0.0	7	0.0
원리보장금 소계			497,548	98.3	116,135	90.1	6,045	90.1	49,487	85.6	669,216	92.9
실적배당	실적배당형 보험		166	0.0	1,536	0.1	9	0.1	352	0.6	2,064	0.3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780	0.2	38	0.0	0	0.0	30	0.1	849	0.1
		혼합형	698	0.1	7,968	0.2	14	0.2	1,096	1.9	9,776	1.4
		채권형	3,616	0.7	21,515	9.0	607	9.0	3,182	5.5	28,921	4.0
		재간접	80	0.0	317	0.0	0	0.0	37	0.1	434	0.1
		부동산/실물/특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1,105	0.2	0	0.0	0	0.0	0	0.0	1,105	0.2
		집합투자증권 소계	6,446	1.3	31,374	9.4	631	9.4	4698	8.1	43,148	6.0
	직접투자		316	0.1	127	0.0	0	0.0	294	0.5	737	0.1
실적배당 소계			6,762	1.3	31,501	9.4	631	0.0	4,992	8.6	43,885	6.1
대기성 자금			1,845	0.4	1,964	0.5	36	0.5	3,338	5.8	7,183	1.0
총계			506,156	100.0	149,601	100.0	6,711	100.0	57,816	100.0	720,284	100.0

5. 2013년 9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억원, %)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형	351,391	94.3	161,905	94.9	50,834	96.8	102,998	84.1	2,088	98.3
실적배당형	17,575	4.7	7,725	4.5	1,339	2.6	17,234	14.1	13	0.6
기타	3,684	1.0	887	0.5	334	0.6	2,256	1.8	22	1.1
합계	372,649	100.0	170,517	100.0	52,507	100.0	122,488	100.0	2,123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www.hanaif.re.kr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행복가이드 2013.11[No.08]
150-70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Tel 2002-2200 | Fax 2002-2610